

“참배객들에게 늘 새로운 5월 이야기 전할 것”

5월 이 사람 국립 5·18민주묘지 정명선 안내팀장

스리랑카·미얀마 등 민주화운동 공감하는 각국 추모객 보면 ‘뿌듯’ 알려지지 않은 오월 이야기 많아 ... 41년 지났어도 5·18은 ‘진행형’

국립5·18민주묘지에는 5·18을 기억하려는 이들을 위한 든든한 길동무가 있다. 정명선(53) 국립5·18민주묘지 안내팀장을 비롯한 9명의 ‘민주묘지 안내팀’이다.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안내를 담당해 온 정 팀장은 “5·18을 전혀 모르고 오는 관광객부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오는 학자들까지, 누구나 5·18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소개했다.

정 팀장이 묘지 안내 업무를 맡게 된 건 2006년 고(故) 박경순 전 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취임한 뒤부터다. 박 전 소장은 5·18 유족회 출신으로, 첫 민간 여성 소장이었다.

정 팀장에 따르면 당시에는 묘역 안내팀이 없어 광주시, 기념재단 등에서 해설사들이 파견돼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박 소장은 시에 도움을 요청,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

는 인원을 모집해 안내팀을 새로 꾸렸다. 시에서 일 분야를 통해 업무를 맡고 있던 정 팀장도 이 때 묘지로 근무지를 옮겼다.

정 팀장은 “늘 익숙적이었던 박 전 소장은 묘지를 찾는 분들께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했다”며 “박 전 소장에게서 마음가짐 등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의지가 지금의 안내팀을 있게 해 준 원동력이 됐다”고 돌아봤다.

언뜻 보면 안내팀은 늘 같은 묘지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 팀장은 “영무 새처럼 같은 말만 하지 않고, 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안내팀이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근현대사 관련 책과 증언록 등 자료를 섭렵하는 것은 물론,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지는 사실에도 귀를 열고 있다. 또 증언이 엇갈리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으므로, 팀원들과 활



발하게 소통·토론해 참배객에게 전하는 정보가 헛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처음 일을 맡았을 땐, 5·18을 잘 모르는 팀원들이 많았죠. 막대한 공부량에 지쳐 그만둔 이들도 더

러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를 받은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희생자들의 사연에 공감하고, 5·18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껴요. 한편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다짐하는 계기도 하죠.”

안내팀은 세계 각국의 한국어·역사 전공 교수·학자 등 외국인들을 접할 때도 많았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이 근로정신대와 5·18을 모두 겪었던 고(故) 김혜옥 할머니를 추모하고자 찾아왔을 때도 공동해설을 준비했다. “수년 전에는 내전을 겪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려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지요. 이들을 맞을 때면 광주가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5·18 41주년을 맞은 올해도 정 팀장은 ‘역전히 5·18이 끝나지 않았다’고 느낀다. 5·18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거듭할수록, 알려지지 않은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 매일 새롭다는 것이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는 분들은 5·18의 의미를 알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지요. 두 번, 세 번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늘 공부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 덕에 저희들도 오월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전남어촌탐구생활’ 장흥 수문서 키조개 잡이 체험



전남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마련한 ‘전남어촌탐구생활’에 참여한 귀어 희망 도시민들이 지난 19일 장흥 수문 어촌계에서 키조개를 잡는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 온 이들은 맨손어업 등을 체험해보고 전남 어촌으로의 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사제동행 제빵봉사활동’ 진행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식)가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광주적십자봉사관에서 청소년 RCY 단원 20여명과 지도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제빵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작한 쿠키 100개와 빵 120개는 고려인 마을 청소년 문화센터에 전달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기아 오토랜드 광주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7000만원 후원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박래석)는 20일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기아월드 지구살리기 프로젝트’ 후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기아월드 사업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2016년부터 지역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추진해 온 지역사회통합 프로젝트다. 2016-2018년 지역주민 통합, 2019년 자생력 있는 마을 만들기, 2020년 지역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및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식변화와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형성하고, 광주시민의 참여유도와 인식변화를 도모하는 ‘지구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우선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0명을 선정한 뒤 ‘지구살리기 챌린지9(구)’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달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진행, 사회복지시설 100개소를 기후위기대응 거점으로 선정하는 ‘그린복지시설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구살리기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6월 중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제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의 점진적 해소를 도모하는 ‘기아월드 지구살리기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호남대 정은성 교수,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위촉



호남대학교 정은성(사진)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전문교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은성 교수는 2년간 관광·레저, 보건·복지, 미용, 음식조리 분야에 총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정 교수는 한국관광연구학회 지역부회장, 한국호텔관광학회 편집위원,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관세청 보세판매장 관광인프라 특허심사위원 등 학계와 산업계에서 관광 및 지역개발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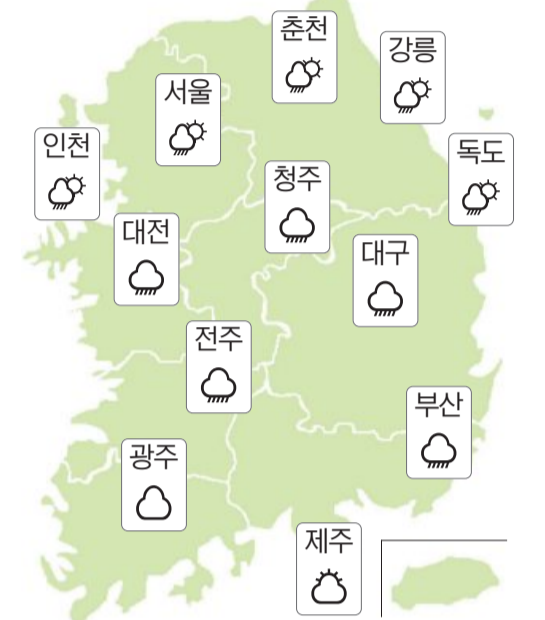
해돋이	05:25	달뜨기	13:33
해질	19:34	달짐	02:12

해상 안전사고 유의

저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14/20	보성	흐림	14/21
목포	흐림	14/19	순천	흐림	15/22
여수	흐림	16/22	영광	흐림	13/19
나주	흐림	13/20	진도	흐림	14/20
완도	흐림	15/22	전주	비	14/20
구례	흐림	14/20	군산	흐림	14/20
강진	흐림	14/21	남원	비	14/19
해남	흐림	14/20	흑산도	흐림	14/20
장성	흐림	13/20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2.0	0.5~1.5		
	면바다(북)	1.5~2.5	1.0~2.0		
	면바다(남)	1.5~2.5	1.0~2.0		
남해서부	앞바다	1.0~2.0	0.5~1.5		
	면바다(서)	1.5~2.5	1.0~2.0		
	면바다(동)	1.5~2.5	1.5~2.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1:48 15:04	09:03 21:36
여수	10:50	04:22
	23:03	17:11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	☀	☀
13/26	16/28	17/25
25(화)	26(수)	27(목)
☁	☁	☁
14/25	13/25	15/25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강세구(전 전남일보 정치부장)·조현정(동신대 홍보팀장) 씨 쌍남 동학(충남 예산 신양초 교사) 군, 김남호(충남 논산여고 교사)·임경옥(동대전고 교감) 씨 차녀 영주(충남 온양중앙초 교사) 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대전시 유성구 라도무스아트센터 3층 라도무스홀.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차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차매, 스트레

- 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 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씩만 개강, 광주대 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351-1206.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